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로의 초대/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일 날...”/ 다같이

*사죄를 위한 침묵의 기도/ 다같이

*참회의 기도/ 다같이

*용서의 찬양/ 다같이

보라 어린양 예수 세상죄 모두 지셨네 보라 어린양 예수 나의 죄 모두 지셨네 나는 알았고 고백하리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는 주의 어린양 나의 죄 모두 지셨네

*사죄의 선언과 감사의 권면/ 사회자

*감사의 찬양 및 봉헌/ 다같이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해:||

예배 중 기도/ 말은이

기도송 / 다같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다같이

성경교독/ 고린도전서 9장 16-27절 / 다같이

설교 및 기도/ 설교자 (2면 참고)

*찬송/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 다같이

*축도/ 담임목사

광고와 교제/ 다같이

*표는 일어서기입니다.

설교: 이성계 목사

바울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

-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 2)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의와 사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 3)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 4)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어떤 종입니까?
- 5)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 6) 율법 없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트리 쿼션스!
- 7) 여러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변화 시킨다는 것인가요?
- 8) 바울 시대 운동장에서 있었던 달리기 경주의 목적과 복음의 경주 목적, 그리고 각각의 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9) 이기기를 다투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글자 그대로?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니 교인 내 교인 하면서 싸울까요?
- 10) 향방 있는 달음질, 허공을 치는 싸우기가 아님... 여기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만연한 반지성주의가 회개할 바는 없습니까?
- 11)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설명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돈케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이교회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4-2 산두로 255-8 우편번호) 10357
031-905-8291, 031-906-7754
공식계좌: 국민은행 166101-04-184638 (예금주) 모든이교회
Modenee Presbyterian (Tong-Hap) Church of Korea
WebSite: modenee.kr
E-Mail: modenee@me.com
담임목사: 이성계

정기모임

주일예배 1부 일요일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10시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에레브 사발 금요일 오후 7시



사도의 권한?

고전 9.1-15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상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도다! 나에게 여러분의 대접을 하라! 하라! 하라! 바울은 자기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는 시장 바닥에서 천막을 만드는 알바를 했지요. 그리고 자기도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아내라...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다면 그는 확실히 유부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대동하지 않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다소에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예베소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각기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나 봅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도 한 동안 자비량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그 양 젖을 먹지 않겠느냐고 주저리주저리 읊어댔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도 허락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을 내뱉어 놓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세속적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마디 하면 척척 알아 듣지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도 곤궁했던 말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말을 했던 말인가... 여러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고린도전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가 헌금 해주기를 바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개인사를 동원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개인사의 문제는 조용히 해결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그 시대에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구질구질한 말을 했을까... 사실 바울의 요구는 구질구질한 사안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온당하고 복음적으로 온당한 사안입니다. 미리 챙겨주지 않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고전 9.1-15의 노동운동의 너절한 요구사항은 고전 9.16-27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달리기에서 우승하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소신에 찬 설명으로 '있었던 것이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신박하지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달리기 우승자는 하나라고요? 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달리기에서 우승자는 결코 하나가 아닐 겁니다.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그 달리기에서 우승을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뒤를 가려 읽고 순수이성으로 비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이성비판이 뭐예요?



Weekly Modenee

No. 06, February 11, 2024.

알려드립니다

- 1) 의미 있는 설날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 2) 2월 9일 일몰 부터 아달 1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히브리력으로 금년은 윤년이라 아달 월이 두 번 있습니다. 아달 월 행사는 아달 2월에 몰아서 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매우 늦어져서 4월 22일 일몰에 시작이 됩니다.
- 3) 2월 13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부터 정오까지 '웨스트 포럼'이 있습니다.